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 년 1 월 29 일

CUOMO 주지사, 주 조사의 결과로 현재까지 무청구 생명보험 급부금 6 억 6500 만 달러 이상 지급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1 년 7 월 금융서비스부가 시작한 조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생명보험 수익자들에게 6 억 6500 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DFS 가 2012 년에 새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보험회사는 사망 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익자를 정기적으로 찾지 않고 그대신 누군가가 청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보험 증권에 친척에 의해 기명되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Cuomo 지사의 지시로 2011 년 7 월에 DFS 는 생명보험 청구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수익자들에게 총 89,171 건에 6 억 6570 만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뉴욕커들의 총 18,597 건 2 억 620 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 년 5 월에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들에게 이러한 검색을 적어도 분기 1 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2012 년 12 월에 Cuomo 지사는 증권 소유자가 사망한 때를 식별하고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자를 찾기 위해 기록을 규칙적으로 영구 검색하게 하는 새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개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생명보험 급부금을 받는 것은 공정할뿐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리더십과 우리가 시행한 새 규제의 결과로 생명보험사들은 이제 수억 달러의 무청구 급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증권 소유자 사망을 전향적으로 파악하고 사람을 찾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 책임자인 Benjamin M. Lawsky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실 증권 대부분은 중산층과 근로 가족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자신을 위해 의도된 돈의 지급으로 분명히 덕을 볼 것입니다. 수익자들에게 6 억 6500 만 달러 이상이 이미 지급되는 결과를 낳은 우리의 현행 조사는 Cuomo 지사께서 작년에 서명한 법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2011년에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에 증권 소유자 사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사망 마스터 파일”을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활성 및 해지된 증권과 크로스체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새 법은 보험사에 분기별로 데이터 검색을 수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 외에 이 새 법은 보험사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사망한 증권 소유자가 구입했을 수 있는 복수의 증권을 검색하여 보험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에 사망을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주체들이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증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증권 소유자 사망시 급부금이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증권 구입시 충분한 수익자 정보를 요청함.
- 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인 www.dfs.ny.gov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인 “분실 증권 찾기 도구”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돕기 위해 분실 증권 또는 무청구 생명보험 증권을 찾기 위한 정보의 요청에 대응함.

금융서비스부는 생명보험 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분실하거나 잘못 둔 사랑하는 고인의 생명보험 증권 및 연금 계약서를 찾도록 돕는 분실 증권 찾기 도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요청은 보험 회사에 전달되어 증권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검색이 이루어지고 급부금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